

# 아카데미 ‘화합·균형·다양성’ 택했다... ‘보랩’ 4관왕

〈보헤미안 랩소디〉

### ‘로마’ ‘블랙 팬서’ 각 3관왕 ... 작품상 ‘그린 북’ 이변 남우주연상 머큐리역 라미 말렉 “난 이민가정의 아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이변이 많았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올해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본 전문가들의 관전평이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철저히 균형과 안배, 다양성을 중시했다. 당초 각각 10개 후보를 배출한 ‘로마’와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가 과연 몇 개 부문을 싹쓸이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아카데미는 한 작품에 몰아주기보다 골고루 여러 작품에 오스카 트로피를 안겼다.

또 백인 남성 중심에 탈피해 다양성과 인종 간 화합에 무게 중심을 뒀다. 가장 관심을 끈 작품상 트로피는 ‘그린 북’(피터 패럴리 감독)에 돌아갔다.

‘그린 북’은 1960년대 초 미국을 배경으로 이탈리아계 이민자 출신 토니 발레롱가(비고 모텐슨 분)와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셸리(마허설라 알리)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작품. 아카데미가 선호하는 실화 영화인 데다 인종차별 등 묵직한 주제를 담아 작품상 수상 가능성이 점쳐지기는 했다. 그러나 막상 가장 강력한 수상 후보였던 ‘로마’를 꺾고 작품상을 받아 ‘이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피를 가져감으로써 최다관왕이 됐다. 킨 리드 싱어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음악을 완벽하게 소화해 남우주연상을 받은 라미 말렉은 “저는 이집트에서 온 이민 운 가정의 아들”이라며 “이런 스토리를 쓰고 이야기할 수 있어 더욱더 감사하다”며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여우주연상은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에서 열연한 올리비아 콜맨에 돌아갔다. 18세기 영국 왕실을 무대로 여왕 앤과 측근, 하녀까지 세 여성이 벌이는 팽팽한 신경전을 다룬 이 작품에서 콜맨은 절대 권력을 지녔지만 히스테리하고 변덕스러운 앤을 다층적으로 표현해 찬사를 받았다.

‘더 페이버릿’은 10개 후보를 배출했지만, 여우주연상 하나만 가져가는 데 그쳤다.

올해 최대 화제작으로 꼽힌 ‘로마’는 감독상과 촬영상, 외국어영화상 3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안았다.

아카데미 시상식 최초로 넷플릭스 영화가, 또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을지 관심이 쏠렸으나, 작품상 수상은 실패했다.

‘로마’는 멕시코 출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자신을 어머니처럼 돌봐준 유년 시절 유모를 추억하며 모국에서 현지어(스페인어)를 사용해 흑백 영상으로 만든 영화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이날 무대 위에 올라 “이 영화는 사랑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사랑하라는 것.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린 북’은 작품상 이외에 남우조연상(마허설라 알리), 각본상까지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전 세계 큰 열풍을 불러일으킨 ‘보헤미안 랩소디’는 남우주연상, 음향 효과상, 음향편집상, 편집상 4개 부문에서 트로

피를 가져감으로써 최다관왕이 됐다. 킨 리드 싱어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음악을 완벽하게 소화해 남우주연상을 받은 라미 말렉은 “저는 이집트에서 온 이민 운 가정의 아들”이라며 “이런 스토리를 쓰고 이야기할 수 있어 더욱더 감사하다”며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여우주연상은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에서 열연한 올리비아 콜맨에 돌아갔다. 18세기 영국 왕실을 무대로 여왕 앤과 측근, 하녀까지 세 여성이 벌이는 팽팽한 신경전을 다룬 이 작품에서 콜맨은 절대 권력을 지녔지만 히스테리하고 변덕스러운 앤을 다층적으로 표현해 찬사를 받았다.

‘더 페이버릿’은 10개 후보를 배출했지만, 여우주연상 하나만 가져가는 데 그쳤다.

올해 최대 화제작으로 꼽힌 ‘로마’는 감독상과 촬영상, 외국어영화상 3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안았다.

아카데미 시상식 최초로 넷플릭스 영화가, 또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을지 관심이 쏠렸으나, 작품상 수상은 실패했다.

‘로마’는 멕시코 출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자신을 어머니처럼 돌봐준 유년 시절 유모를 추억하며 모국에서 현지어(스페인어)를 사용해 흑백 영상으로 만든 영화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이날 무대 위에 올라 “이 영화는 사랑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사랑하라는 것.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린 북’은 작품상 이외에 남우조연상(마허설라 알리), 각본상까지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전 세계 큰 열풍을 불러일으킨 ‘보헤미안 랩소디’는 남우주연상, 음향 효과상, 음향편집상, 편집상 4개 부문에서 트로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수상자 라미 말렉, 여우주연상 수상자 올리비아 콜맨, 여우조연상 수상자 리자이나 킹, 남우조연상 수상자 마허설라 알리(왼쪽부터)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외국어영화상 수상 이후에는 “시민 케인, 조스, 대부와 같은 외국어 영화를 봤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고, 촬영상을 받고서는 “하나의 프레임만 들여보면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우와 프로듀서, 넷플릭스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아카데미가 비록 작품상은 아니지만, 감독상 트로피를 ‘로마’에 안김으로써 넷플릭스 영화에도 빛장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블 히어로 영화 ‘블랙 팬서’도 의상상, 미술상, 음악상 3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내며 ‘블랙필름’ 돌풍을 일으켰다.

남우조연상은 ‘그린 북’에서 천재 피아

니스트 돈 셸리를 연기한 마허설라 알리가 받았다. 그는 2년 전 ‘로라이트’(2017)로 아카데미상 남우조연상을 받은 지 2년 만에 다시 한번 트로피를 품었다. 여우조연상은 영화 ‘이프 빌 스트리트 쿠드 토크’의 리자이나 킹에게 돌아갔다.

1989년 제61회 시상식 이후 30년 만에 공식 사회자 없이 치른 올해는 예년과 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와 드러머 로저 테일러, 그리고 미국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가수 애덤 랩버트가 ‘위 윌 록 유’(We Will Rock You)를 부르며 시상식 포문

을 열었다.

영화 ‘스타 이즈 본’에서 호흡을 맞춘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는 이 영화 주제곡인 ‘셴로(Shallow)’를 공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영화로 주제가상을 받은 레이디 가가는 무대 위에 올라 울먹이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꿈이 있다면 계속해서 싸워나가기 바란다. 열정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각색상을 받은 영화 ‘블랙클랜스맨’의 스파이리 리 감독은 노벨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린 북’은 1960년대 초 미국을 배경으로 이탈리아계 이민자 출신 토니 발레롱가(비고 모텐슨 분)와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셸리(마허설라 알리)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작품. 아카데미가 선호하는 실화 영화인 데다 인종차별 등 묵직한 주제를 담아 작품상 수상 가능성이 점쳐지기는 했다. 그러나 막상 가장 강력한 수상 후보였던 ‘로마’를 꺾고 작품상을 받아 ‘이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전 세계 큰 열풍을 불러일으킨 ‘보헤미안 랩소디’는 남우주연상, 음향 효과상, 음향편집상, 편집상 4개 부문에서 트로

### 오늘 KBS ‘시사기획 창’ 북미정상회담 특집방송

KBS 1TV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즈음해 오는 26일 밤 10시 특집 ‘시사기획 창’을 방송한다고 25일 예고했다.

북미회담 하루 앞서 방송할 ‘시사기획 창-한반도 평화, 그 두 번째 봄’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와 전망을 제공한다. 북한 공식 매체 분석과 내부 행사 화면 입수, 베트남 현지 취재 등 입체적 접근을 통해 미국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준비 상황과 목표를 살펴본다.

특히 제작진은 북한 경제 당국이 지난달 평양에서 중국인 사업가들을 상대로 연 투자 설명회 화면과 자료를 입수했다. 고위 간부가 직접 나선 이 설명회에서 북한은 자급이나 기술 부족 같은 자신들의 약점을 내놓고 말하거나, 외부 투자자의 우려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는 등 과거와는 달린 자세를 드러냈다.

제작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방문을 통해 설계할 북한 경제의 미래도 예측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베트남처럼 경제 발전의 길로 걸어들어갈 수 있을지도 진단해본다. /연합뉴스

### SBS 예능 ‘가로채! 날’ 소유진 메인 MC 합류



배우 소유진(사진)이 SBS TV 예능 ‘가로채! 날’에 MC로 합류한다.

소유진은 프로그램에서 새로 선보이는 ‘다다익살’ 코너 메인 MC를 맡는다. ‘다다익살’은 화제가 된 현상과 주제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입담꾼들이 펼치는 그룹 토크 코너다. 소유진은 배우로서, 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의 사이에 둔 세 아이의 엄마로서 폭넓은 시각을 전하며 코너 중심을 잡는 기동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밤 11시 10분 방송.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 보합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뉴스 5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프리즘(재)	1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35 MBC PICK X 선을 넘는 녀석들 50 생방송 빛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해치(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손잡이 아내	30 특집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덕화티비	55 3.1절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다카하지의 작은방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아윤희)			
10	00 2019 북미정상회담 기획 시사기획 창 55 UHD 습터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특선 다큐 KBS 스페셜(재)	10 6자회담 1~2부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5 KBS 뉴스 45 KBS 결집 다큐멘터리(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 <b>닭고기 마뽀와 채소장아찌</b> )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 <b>고택의 겨울 2부</b> 외나무다리 건너, 무성)	12:00 EBS 정오뉴스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3:00 다큐 오늘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3: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5:00 마사와 품스페셜 15:15 탐원 구조대 15:45 몬카트 16:15 짝과 팡 16:30 방귀대장 뽀뽀(재) 16:45 당동댕 유치원1~2
06: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마사와 품 17:30 로보가 폴리(재) 17:45 띠띠뽀 띠띠뽀(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1~5 19:00 미니특공대 X 19:30 EBS 뉴스 20:40 세계테마기행 ( <b>중국 동화(冬話) 2부 천하제일경 황산</b> ) 21:30 한국기행 ( <b>몽쳐야 산다 2부 좋지 아니한가</b> )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우리만 이랑가 23:5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4:45 지식채널e 24:50 다큐 시네마(워로공단)
07:00 너티너츠	
07:30 고고다노노 공룡탐험대	
08:00 당동댕 유치원1~2	
08:30 띠띠뽀 띠띠뽀	
08:45 방귀대장 뽀뽀	
09:00 뽀뽀뽀 뽀로로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0:30 한국기행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6일(음 1월 22일 甲午)	
	36년생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될 것이다. 48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우선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60년생 지금 즉시 뜻을 펼쳐보는 것도 기대해 볼만 하다. 72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84년생 호사다 마요, 새옹지마로다. 행운의 숫자 : 54, 90		42년생 미연에 대처한다면 화도 막을 수 있다. 54년생 원인 요소와 기초를 같이 하고 있다. 66년생 전화위복이요, 새옹지마에 비유할 만하다. 78년생 전반적이고 완벽한 방어책이 절실하다. 90년생 기본적인 관계를 원만히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84, 13
	37년생 원칙에 따라야만 탈이 없다. 49년생 어지간해서는 이루기가 어려우니 특단의 조처를 취하라. 61년생 대중 남길 일이 아니다. 73년생 인식의 관점을 뛰어 넘는 파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85년생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70, 18		43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이다. 55년생 효과적이야만 할 것이다. 67년생 난제를 잘 수습해야만 하는 형국에 놓여 있다. 79년생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큰 전환에 수월할 것이다. 91년생 파격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55, 94
	38년생 당면 과제에 매진함이 기쁨을 줄 것이다. 50년생 기쁨이 가치를 드높일 것이다. 62년생 유행이 쉬워지면 서 성사된다. 74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86년생 여러 말을 다 할 필요 없이 핵심적인 몇 마디만 하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75, 79		44년생 가끔씩 절제하는 것이 지혜롭다. 56년생 절실한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다. 68년생 겉으로는 봉합되어 있을지라도 내면에는 제각각임을 알아. 80년생 막연하다면 실수가 잦을 것이다. 92년생 적용이 적절하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1, 24
	39년생 단순한 비교는 편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51년생 겉치는 일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63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75년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87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38, 53		45년생 부드러움이 감함을 능히 제어하는 법이다. 57년생 서두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 69년생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81년생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다면 욕심내어서는 아니 된다. 93년생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1, 54
	40년생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 마음을 폭 놓아라. 52년생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단계이다. 64년생 큰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76년생 만사여의로다. 88년생 활용하기에 편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19, 78		34년생 당면 과제에 집중적으로 매진하는 것이 좋다. 46년생 짜임새 있는 시간 활용이 성패를 좌우한다. 58년생 거품을 제거하고 실속을 챙겨야 할 때다. 70년생 기대보다는 못 미치지지만 짝짱하겠다. 82년생 겉모습은 별로지만 실상은 양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05
	41년생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53년생 조심스럽게 내딛어야겠다. 65년생 순식간에 벌어지고자 할 것이니 크게 뜨고 지켜 볼 일이다. 77년생 목전에서 엮어진 수레를 보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 89년생 발전된 국면으로 진입하는 때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2, 69		35년생 부족함을 채우는데 노력하자. 47년생 지금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9년생 방치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71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는다. 83년생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1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